

김계춘 칼럼



는 설 실 장 kckim21@ihalla.com

아직도 유효한 '지상의 평화'

말을 조래할 수도 있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미·소 뿐만 아니라 로마 바티칸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교황(敎皇) 요한 23세는 10월 23-24일 밤을 새우며 서한 한장을 만들어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에게 보냈다.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를 외치는 인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를 파멸(破滅)로 이끌 수 있는 무력사용 자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그 다음날 소련의 공산당기판자인 프라우다지 1면엔 "인류의 외침에 귀를 막지 말라(Pacem in Terris)"는 이란 배경 아래서 탄생했다. 1963년 4월 11일 반포된 회칙은 사상 최초로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라 지구상의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回勅)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는 이런 배경 아래서 탄생했다. 1963년 4월 11일 반포된 회칙은 사상 최초로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라 지구상의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 회칙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무자비함을 직접 체험한 교황의 절절한 '평화 염원'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전 세계를 공감시켰다.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에서 "결코 평화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가 무기를 보강하면 다른 국가들도 보강하고, 한 국가가 원자(核) 무기를 생산하면 다른 국가들도 더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악순환(惡循環)이 계속된다. 그 결과 인간들은 일순간에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악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경제와 사회를 파괴시키며, 도덕적 탈선과 혼란을 야기하는 세계대전의 불행이 인류 가족에 세번째로 닥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

'지상의 평화'란 회칙이 반포된지도 올해로 딱 50년이 되었다. 반세기만 간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오늘도 불안한 악몽(惡夢) 속에 살고 있는 중이다. 핵 개발 등 군비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최근 들어 외신(外信)들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반세기 전 쿠바사태 때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흡사하며, 특히 미국이 최첨단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출격(出擊)시키는데 대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 주목하고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경구(警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그러기에 평화(平和)와 인간 존엄을 역설한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제주발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전제조건

제주발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서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해공적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반세기 전 쿠바사태 때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흡사하며, 특히 미국이 최첨단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출격(出擊)시키는데 대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 주목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제주발담의 가치와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포럼·워크숍에서는 "훌륭하다"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발상의 전환이 매우 흥미롭다"는 등 호평(好評)이 이어졌다. 농업시스템·경관뿐만 아니라 문화, 생물다양성, 자연·환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의 '세트'로 조합하는 보완이 이뤄진다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도 나왔다.

2002년 태동한 세계농업유산시스템은 그동안 쌀농업과 농법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필리핀의 이푸가오 '다랑이는', 일본의 '따오기 공생농법', 중국 윈난성의 '하니 계단식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다양하고 차별화된 농업유산·경관, 농업문화 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 가며 제주발담의 등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세계농업유산 시스템의 변화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포럼·워크숍 등을 통해 맺어진 인적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전문가 및 기관들과 교류도 넓혀 가야 한다. 제주발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문·생태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제주발담은 바람을 막아 농작물을 길러냈다. 경계를 표시하고,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했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 온 지혜의 산물이다. 제주발담은 이제 중요한 전환기(轉換期)로 접어들고 있다. 선인들의 지혜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제주의 미래가치를 선양(宣揚)할 때인 기회이기도 하다.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글로벌포럼 가능성 확인한 '제주포럼'

스위스의 동부 휴양지인 다보스는 매년 1월이면 흥역을 치른다.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 열린 제43차 포럼의 주제는 '탄력적 역동성'이었다. 전 세계 2500여 명의 정·재계 지도자와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50여개 국가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주요 면면들이다.

다보스포럼은 1971년 '유리피어인 경영포럼'으로 출발했다. 1987년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을 바꾸며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경제·사회 등을 망라, 의제(議題)를 발굴하는 동시에 해마다 실력자나 유명 인물을 아인론으로 내세워 언론의 주목을 끌어내는 등 노력 덕분에이다.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31일 폐막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평화, 경제·경영, 환경·지역개발 등 6개 분야 5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포럼에는 47개 국가 366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31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취재 열기도 여느 해보다 뜨거웠다. 동북아시아의 협력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아쉬움도 함께 남겼다. 제주포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발하면서 '평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토론이 이어지며 제주포럼만의 색채가 퇴색되고 있다. 세계지도자·특별세션에 한해서라도 포럼을 정리·총합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포럼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인프라 등 흡인력(吸引力) 또한 충분하다. 하지만 노력 없이는 글로벌 포럼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다보스포럼은 20여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변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특유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굳건했기에 가능했다. 적절한 의제 설정과 함께 세션의 질적 향상 등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지속·전폭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현재에 만족하고, 관행을 고집하는 자세로는 결코 글로벌 포럼을 만들어 갈 수 없다.

편집국 25시

'안녕하세요'가 그리 어려울까



문 미 숙 사회교육부 차장 ms@ihalla.com

는 관광1번지 제주지만 그들을 맞는 수용태세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거였다. 제주에 머무는 며칠동안 여러 식당을 찾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도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 한 마디를 건네지 않는 곳이 여러곳이었다고 했다. 인사도 않는데 "맛있게 드세요"나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나요"라는 말을 건넬 리가 없다. 그는 "아마도 관광객이 몰릴듯이 밀려오고,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장사가 되니 친절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얼마전 서울에 사는 지인이 수 년만에 제주여행을 다녀왔다. 올레길도 걷고, 숲길도 원없이 걸으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제주 속살을 만나는 여행이었다며 흡족해했다.

입소문이 난 맛집을 추천해 달라는 그에게 평소 '맛집'을 취재해오던 터라 자신있게 한 곳을 추천했다. 점심을 하기엔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당은 관광객들로 보이는 서너팀이 식사중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음식맛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 주인장 내외의 상냥한 인사와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미리 손님상을 둘러보며 챙기는 마음 씀씀이에 더 반했다고 했다. "제주여행을 계획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추천해야겠다"며, 그런 그가 따끔한 지적을 한 가지 남기고 떠났다. "관광객들로 연중 북적이

는 관광1번지 제주지만 그들을 맞는 수용태세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거였다. 제주에 머무는 며칠동안 여러 식당을 찾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도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 한 마디를 건네지 않는 곳이 여러곳이었다고 했다. 인사도 않는데 "맛있게 드세요"나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나요"라는 말을 건넬 리가 없다. 그는 "아마도 관광객이 몰릴듯이 밀려오고,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장사가 되니 친절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얘기에 문득 두어 달 전 지역이 떠올랐다. 한 공영관광지에서 입장권을 끊는데, 직원은 손님들에게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몇 분이세요"라는 말만 바구며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경제·사회 등을 망라, 의제(議題)를 발굴하는 동시에 해마다 실력자나 유명 인물을 아인론으로 내세워 언론의 주목을 끌어내는 등 노력 덕분에이다.



특종 비상 시간문제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Daily (한라일보),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라쉬반 신제주점' (Lashvan Shinjeju Branch) featuring 3D body shaping and health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 (064)711-7678.

Advertisement for IPALG (이팔이지) featuring water treatment and construction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064) 743-0485.